

이재명 “경기 질 것 같으니 탈당...공천은 당원·국민의 선택”

민주당 정책 간담회...운영에 문제 있는 것처럼 말 하는 것 옳지 않아 언론, 국힘 공천 후유증·혼란은 업호...고민정 최고위원 복귀 요청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최근 당내 공천 갈등에 탈당자가 속출하는 것에 대해 “당원의 선택”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직장인 정책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입당도 자유로 탈당도 자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규칙이 불리하다고, 경기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게 마치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경쟁 과정에서 국민, 당원이 선택하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경기하다가 질 것 같으니가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건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것처럼 세대 교체도 있어야 하고 새로운 기회도 주어줘야 하고 특히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수 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조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검은 백조 같은 것”이라며 “어떻게 자신들의 기득권이냐 기성의 위치를 잃게 되는 데 가만히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구태의연한 기득권을 그대로 다 은둔시키고 자기 가까운 사람이라고 꽃아 넣는 국민의 힘식의 공천, 민주당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노웅래·홍영표 의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의 반발에 대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며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같은 공동 속에 큰 줄기를 함께 한다. 우리는 명문(이재명+문재인) 정당”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갈등과 반발은 필연적”이라면서 “국민의힘이 하는 것처럼 해당 지역의 기득권, 대선 의원 중심으로 경선하거나 아니면 힘센 사람 중심으로 공천하면 변화는 없지만 혼란이나 갈등은 적을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 자체 여론조사에 대한 불만이 속출한 것에 대해 “대체로 오해, 과

장에 의한 것”이라며 “조사했다고 해서 문제 삼으면 정당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고반박했다.

그는 “조사는 조사일뿐이고 내부 판단을 위한 조사기 때문에 경선이나 이런 것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당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들이 이런 것에 쉽게 현혹될 만큼 시민 의식이 낮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퇴 의사를 밝힌 고민정 최고위원에 대해선 “조속한 시일 내에 복귀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당의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인사들이기 때문에 개인적 판단만으로 행동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언론을 향해 “공천받으면 친명(친이재명)이 돼 버리고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이러면 다 반명(반이재명), 비명(비이재명) 이렇게 분류하는 걸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당내 공천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혼란은 국민의힘이 훨씬 더 심한데 왜 그쪽은 조용한 공천이라는 등 그렇게 업호하면서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엉터리 왜곡을 하느냐”고 되물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석 “중·성동갑 컷오프 재고해달라”

국회서 기자회견...“민주 지도부 의견 듣고 거취 결정”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이 28일 지도부에 결정 재고를 요청했다. 임 전 실장은 지도부의 답을 들은 이후 자신의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당 지도부에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한다. 중·성동갑에 대한 전략공천위원회의 추천 의결을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에 현직인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했다.

임 전 실장은 “양산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이재명+문재인) 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다며 “지금도 그저 참담할 뿐으로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전 실장은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묻고 싶다.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라며 “통합을 위한 마지막 다리마저 외면하고 홀로 이 대표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되물었다.

임 전 실장은 관심을 끈 거취 문제에 대해 “최종 거취는 최고위원회의의 답을 들은 후에 다시 말씀드

리겠다”고만 했다.

임 전 실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중·성동갑은 대선에서 이 대표가 8.31%p 차이로 패배했고, 서울시장 선거에선 21.9%를 패배한 강남 3구 외에 대표적 약세 지역”이라며 “새로운 분이 와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지 전략적 검토를 했다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이 다른 지역 출마를 요청할 경우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한번 국회의원 더 하자는 게 아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또 “차기 당권 경쟁자 제거 차원의 컷오프라는 해석이 있다”라는 물음엔 “총선을 패배하고도 민주당 간판을 유지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 있는 이야기냐”고 반문했다.

전날 컷오프 발표 후 선거 운동을 중단했던 임 전 실장은 이날 오후 6시 왕십리역 광장에서 선거 운동을 재개한다.

/연합뉴스

“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은 표적 수사”

홍익표 민주 원내대표, 구속영장 재기각에 검찰 무리한 영장 비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8일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재차 기각된 것을 두고 ‘표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실체도 없는 의혹 제기로 무리한 영장을 청구하고 표적 수사한 것”이라며 “통계조작 의혹이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자작극이란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연이은 구속영장 청구는 윤석열 정권의 이전 정부에 대한 편협적 정치보복, 정부 출범 2년이나 돼 가는 시점에도 정치 보복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이어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고 정치보복만 일삼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4월 총선에서 이런 정치보복을 일삼고 민생

경제는 파탄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이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지난 러ndon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자국 내 반도체 투자 보조금 재원 부족 및 자국 우선주의를 피력한 것에 대해 “미국 우선주의로 우리 기업은 반도체 주도권 경쟁에서 뒤쳐질 위기에 직면했다”며 “1호 영업사원인 대통령과 그 참모의 말만 믿었다가 뒤통수 맞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특사 파견 등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부실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있어야 하겠냐. 윤석열 대통령님, 참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통신비·자녀 예체능 교육비도 소득공제”

민주 직장인 총선 공약...주4일제 도입 기업 지원 방안 마련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본인의 체력단련비와 통신비, 자녀의 예체능 교육비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4·10 총선 직장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은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기준과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소득세 기본공제를 가족 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근로소득자 본인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 2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추

진한다.

이 외에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중·고등학교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까지 확대하고, 통신비 세액공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 4일제나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근로자 휴가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신청자가 방문지역을 사전 예약 후 지역 관광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15만원씩 분담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연합뉴스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안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과정)

- 일 시: 2024. 3. 13(수) 오후 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두리보석2층)
- 수강료: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4. 3. 6(수) 오후 7시
- 장 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전기비법 대공개
- 기암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남골당 및 수목장 수목과 풍수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공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 칼라강판 지붕공사
-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 옥상스틸방수
- 전원주택신축
- 공장신축
- 건물 리모델링
- 징크판넬시공
- 창호(샷시)교체

MODERN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광역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